

# 新石器時代의 對外交流

— 釜山地域을 中心으로 —

하 인 수

(부산시립박물관)

이 주 현

(국립창원문화재연구소)

- I. 머리말
- II. 交流文物의 檢討
  - 1. 東三洞貝塚 繩文系遺物
  - 2. 朝島貝塚 繩文系遺物
  - 3. 凡方貝塚 繩文系遺物
  - 4. 其他 遺蹟出土 繩文系遺物
- III. 文物 交流와 背景
  - 1. 文物의 分布와 種類
  - 2. 交流의 背景
- IV. 黑曜石의 交易
- V. 貝鈿의 生産과 流通
- VI. 맺음말

## I. 머리말

本稿의 目的은 新石器時代 사회와 문화의 實態를 糾明하기 위한 基礎 作業의 일환으로 부산지역을 중심으로 하는 지역적인 집단의 대외적인 교류 양상에 대해 최근의 발굴 자료와 연구 성과를 참고하여 그 一面을 고찰하는데 있다.

斷片的인 자료 활용에 따른 問題點과 研究 成果의 부족 등으로 本稿의 目的에 구체적으로 접근하는데 無理한 부분도 없지 않다. 이러한 점들은 다시 補完하고 修訂할 예정이지만, 여기서는 우선 韓日 兩地域에서 출토된 交流遺物의 分析을 통해 신석기시대의 대외교류 관계와 그 性格을 분명히 하고, 최근 조사된 동삼동정화지역 패총의 발굴성과를 일부 활용하여 당시 부산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교류활동의 일면을 살펴보고자 한다.

周知하는 바와 같이 특히 地理的으로 가깝고, 類似한 生態環境을 갖는 韓半島 南海岸과 日本列島의 九州地方의 交流關係 研究는 解放前부터 繩文文化의 系統과 起源 問題와 結付되어 日本 研究者들의 관심의 대상이 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분위기는 현재도 계속되고 있으며, 韓日交流關係史 研究의 대부분은 日人 研究者들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해도 과언이 아니다. 물론 이에 대한 韓國側의 연구도 없는 것은 아니지만, 그 내용은 미미한 편이다.

최근들어 韓半島 南部 各地域에서 새로운 遺蹟의 調査와 다양한 遺物들이 출토되면서 櫛文土器文化와 韓日交流史에 새로운 接近과 再檢討의 必要性이 대두되고 있다. 다시 말하면 한반도 新石器時代의 草創期文化의 可能性<sup>1)</sup>과 日人 研究者들이 주장해

1) 河仁秀, <嶺南地方 隆起文土器의 再檢討> 《嶺南地域의 新石器文化》, 嶺南考古學會, 1997.

李東注, <韓國先史時代 南海岸 有文土器研究>, 東亞大學校大學院 博士學位論文, 1996.

은 蠡式土器와 隆起文土器, 瀛仙洞式土器와 曾畑式土器의 관계에 대한 再認識<sup>2)</sup> 등은 기존의 연구 성과와는 전혀 다른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라 하겠다.

한편, 1999년 부산시립박물관에 의해 조사된 동삼동패총<sup>3)</sup>에서 1,500여점에 달하는 다량의 패천과 흑요석, 1호주거지에서 출토된 탄화된 조, 기장의 확인은 신석기시대의 물자유통과 지역적인 교류관계를 보다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실례라고 생각된다.

필자들은 이상의 연구 성과와 발굴결과를 토대로 부산을 중심으로하는 동남해안지역의 신석기시대 물자유통과 교역이라는 측면에서 당시 문화교류<sup>4)</sup>의 내용을 검토하고 약간의 의견을 제시하고자 한다.

## II. 交流文物의 檢討

한반도 동남해안에 위치하는 부산지역은 지리적으로 일본 열도와 가까운 관계로 舊石器時代 이래 인간의 왕래에 의한 문물

- 
- 2) 李相均, <新石器時代における韓國南岸と九州地方の文化交流> 東京大學大学院 博士論文, 東京大學, 1995.  
李東注, <韓國 隆起文土器와 日本 蠡式土器에 대하여> 《釜山女大史學》107·11, 1993.
  - 3) 河仁秀, <東三洞貝塚 淨化地域發掘成果> 《고고학을 통해 본 가야》, 韓國考古學會, 1999.
  - 4) 신석기시대 문화교류의 양상은 편의상 문물 이동의 지리적 범위와 문화적 성격에 따라 크게 대외교류와 지역적(대내적) 교류로 대별할 수 있다.  
대외교류는 지역과 문화적 기반을 달리하는 한반도 이외의 지역과의 교류, 지역적 교류는 한반도 내의 재지간에 이루어지는 대내적 교류를 의미한다.  
前者에 대해서는 鄭澄元, 河仁秀의 구체적인 연구(鄭澄元·河仁秀, <南海岸地方과九州地方의 新石器時代 文化交流 研究> 《韓國民族文化》12, 1998.)가 있으나 後者에 대해서는 아직 구체적인 연구가 없는 실정이다.

의 이동과 文化의 교류가 한반도 어떤 지역 보다 빈번하게 이루어져 왔고 이와 관련한 많은 유적과 유물이 남아 있다.

일본열도 특히 九州地方에서 부산지역에 유입된 일본계 유물 중에는 그대로 搬入된 舶載品과 模倣한 類似品, 또는 影響下에 在地化된 것들이 있다. 이밖에 국내의 타지역으로부터 부산지역에 유입된 유물과 부산지역에서 생산되어 타지역으로 반출된 것으로 판단되는 것도 일부 확인되고 있다.

예를들면, 용호동유적 출토 편마암제 磨製石斧라든가, 조도패총과 범방패총 출토 중서부지역의 沈線文土器, 범방패총의 분묘에서 출토된 軟玉製 頸飾 등은 타지역에서 부산지역으로 유입된 것으로 생각되는 것이다. 그리고 상시유적과 단양 금굴유적, 청도 오진리유적 출토 南海岸産의 투박조개로 만든 패천은 동삼동패총을 중심으로 부산지역에서 이동된 것으로 추정된다.

신석기시대 국내의 지역적인 교류문제는 대외교류 못지 않게 당시 지역집단의 동향과 성격, 사회구조 등을 규명하는데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되나 본고에서는 대외교류문제에만 초점을 맞춰

부산지역의 제집단에 의해 이루어진 대외 교류문물에 대해 간단히 살펴보고 약간의 검토를 가하고자 한다.

## 1. 東三洞貝塚出土 繩文系遺物

東三洞貝塚은 광복전 1930년대에 及川民次郎과 橫山將三郎의 調査<sup>5)</sup> 이후 1963~1964년에 미국 위스콘대학의 모어(Mohr, A.) 및 샘플(Sample, L.L.)에 의한 부분적인 발굴이 행해지고,<sup>6)</sup> 1969~

5) 橫山長三郎, <釜山府絶影島 東三洞貝塚調査報告> 《史前學雜誌》5-4, 1933.

及川民次郎, <南朝鮮牧ノ島東三洞貝塚> 《考古學》4-5, 1933.

6) Sample, L.L., <Tongsamdong : A Contribution to Korea Neolithic Culture History> 《Artic Anthropology》XI-2, 1974.

1971년까지 3회에 걸쳐 國立中央博物館에 의해 정식발굴조사<sup>7)</sup>가 실시되었다. 그 결과 單一 貝塚遺蹟으로 그 규모 뿐만 아니라 新石器時代의 여러 文化層이 중복되고 다양한 유물들이 출토되므로써 韓半島 남부지방 新石器文化를 연구하는데 중요한 유적이 판명되어 한반도 남부지역의 즐문토기문화를 이해하는데 標式遺蹟으로써 자리잡게 되었다.

그러나, 지금까지 정식발굴보고서가 간행되지 않고, 또 부분적으로 발표된 내용 중 특히 유적의 층위나 出土遺物의 性格, 編年 등에 異見과 불투명한 부분이 많으나 1999년도 발굴 성과로 이러한 문제는 상당히 해결될 것으로 기대된다.<sup>8)</sup>

그러면 여기서는 기존의 자료와 정식발굴조사 내용중 부분적이지만 공개된 자료를 중심으로 東三洞貝塚 출토 일본 繩文系遺物에 대해 간단히 살펴보기로 한다.

### 1) 繩文系土器

기존의 동삼동패총 조사에서 출토된 繩文系土器(그림 1-1~11)는 10여점이 알려져 있다.<sup>9)</sup> 이들 자료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자세히 알 수가 없지만 샘플과 坂田邦洋의 보고에 간단히 소개되어 있다. 특히 동삼동패총 유물을 정리한 바 있는 坂田邦洋에 의하면, 繩文系土器는 동삼동 제2층(金元龍의 東三洞 III期 이하 氏명

7) 韓炳三, <櫛目文土器> 《世界陶瓷全集》17, 韓國古代 小學館, 1979.

金元龍, <各地方의 土器·石器·骨刻器> 《韓國史》1, 국사편찬위원회, 1981.

8) 河仁秀, <東三洞貝塚 淨化地域發掘成果> 《고고학을 통해 본 가야》, 韓國考古學會, 1999.

9) 韓炳三外, 《世界陶瓷全集》17, - 韓國古代 -, 小學館, 1979.

金元龍, 《韓國考古學概說》, 一志社, 1986.

Sample, L.L., <Tongsamdong : A Contribution to Korea Neolithic Culture History> 《Artic Anthropology》XI-2, 1974.

坂田邦洋, <曾畑式土器に關する研究 - 先史時代の日本と韓國(豫報)> 《考古學論叢》, 別府大學考古學研究會, 1973.

坂田邦洋, 《韓國隆起文土器の研究》, 昭和堂, 1978.

생략)에서 繩文後期の 西平式土器 및 鐘崎系土器, 제3층(東三洞 II期)에서 繩文中期の 阿高系土器, 제4층(東三洞 I期)에서 繩文前期의 轟式土器, 塞神式土器, 曾畑式土器 등이 출토되었다고 한다.

샘플의 보고 자료에 의하면, 朝島期에서 1점, 牧島期에서 2점 (그림 1-5), 釜山期에서 1점이 출토된 것으로 되어 있으나 <그림 1-4·5>를 제외하면 繩文系土器 여부는 불확실하다. 그러면 우선 이들 자료에 대해 살펴보기로 하겠다.

<그림 1-1~3·6·7>은 九州地方 熊本の 深掘遺蹟 6층에서 출토된 繩文後期 初頭の 阿高式系土器群에 속하는 南福寺式土器와 유사하며,<sup>10)</sup> 이들 토기는 東三洞 III期の 二重口緣土器와 口緣에 斜点列文이 시문된 南海岸地域 後·晩期の 櫛文土器와 공반된다.

<그림 1-4·9>는 繩文前期 後半의 典型的인 曾畑式土器이며, <그림 1-8·10·11>은 繩文前期 前半의 轟B式系이다. <그림 1-5>는 샘플의 논문에 소개된 것인데 胴體 上部에 沈線으로 弧線文을 시문한 것이다. 이 같은 형태의 문양은 繩文前期 後半의 프로토曾畑式 혹은 西唐津式土器에 유행하는 것이다. 사진 자료 밖에 보고되어 있지 않아 자세하지 않으나 사진상의 문양대 특징으로 보아 繩文系土器로 판단된다.

이밖에 西平式, 鐘崎式土器 등도 출토되었다고 하나 그 내용은 불명이다. 東三洞貝塚 출토 繩文系土器들은 대부분 파편들이고 器形은 알 수 없으나 문양형태와 시문기법 등에서 볼 때 모두 九州地方에서 유입된 搬入品으로 생각된다.

한편, 1999년 부산시립박물관 조사에서도 다수의 繩文系遺物이 출토되었는데 아직 未報告라서 전체 상황은 알 수 없으나 일부 보고된 자료에 의하면, 기존의 繩文後期 토기를 포함해서 前期의

10) 坂田邦洋, <曾畑式土器に関する研究-先史時代の日本と韓國(豫報)> 《考古學論叢》, 別府大學考古學研究會, 1973.

轟B式土器, 中期의 船元II式土器(그림 2-3), 阿高式土器, 後期の 南福寺式土器(그림 3-1·2) 등이 확인되고 있다.<sup>11)</sup>

특히, 繩文時代 後期 繩文土器의 다량 검출은 신석기시대 後期·晩에 있어서 일본 구주지역과 동삼동패총 집단간의 빈번한 교류활동의 일면을 보여주는 것으로 판단된다.

## 2) 繩文系石器

동삼동패총에서 출토된 繩文系石器類는 黑曜石製石器<sup>12)</sup>를 비롯하여, 西北九州型 離頭銛頭,<sup>13)</sup> 水晶製石匙(그림 4-6) 등이 알려져 있다.

미쯔노에씨에 의해 동삼동패총 출토품으로 확인된 西北九州型 離頭銛頭는 현재 보고되어 있지 않아 자세히 알 수 없다.

黑曜石製石器는 <그림 1-12·25>의 石鋸를 제외하고 모두 李凡泓에 의해 동삼동패총에서 지표채집한 것이다.<sup>14)</sup> 따라서 출토층위나 공반유물 등에 대해서는 알 수 없다.

<그림 1-13~15>는 石銛, <그림 1-16~19>는 石鏃, <그림 1-22·23>은 자세히 알 수 없으나 小形尖頭器로 생각된다. <그림 1-12·25>는 일본에서 소위 石鋸로 불리는 組合式石銛의 下位 着裝具이다. 이밖에 <그림 1-21>도 일부가 결실되었지만 前述한 石鋸가 아닌가 한다.<sup>15)</sup> 동삼동패총 이외에 남해안의 상노대도패총(그림 5-8·13), 안도가유적(그림 5-18) 등에서 출토되고 있는데, 이러한 형태의 石鋸는 西北九州의 해안지대에 밀집 분포되어 있다.

11) 河仁秀, <東三洞貝塚 淨化地域發掘成果> 《고고학을 통해 본 가야》, 한국고고학회, 1999.

12) 李凡泓, <東三洞貝塚採集石器> 《考古歷史學誌》8, 1992.

13) 水ノ江和同, <曾畑式土器の出現> 《古代學研究》117, 1988.

14) 李凡泓, <東三洞貝塚採集石器> 《考古歷史學誌》8, 1992.

15) 이와 유사한 형태의 石器가 일본의 丸尾遺蹟에서 출토되고 있다.(李相均, <繩文前期前半期における 轟B式土器群の様相> 《東京大學文學部考古學研究 室紀要》, 1994.에서 재인용)

이들 黑曜石製 石器들은 기본적으로 재질이라든가 형태적인 면에서 일본열도의 繩文文化 石器類와 유사한 특징을 보여줄 뿐만 아니라 특히 石鋸는 西北九州의 漁撈文化를 특징지우는 標式 遺物로 생각되고 있다.<sup>16)</sup> 그리고 石器의 제작에 사용된 黑曜石은 대부분 日本 佐賀縣의 腰岳産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것이 사실이라면 동삼동패총의 黑曜石製 石器의 原料는 모두 일본에서 가져온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이들 石器類가 完製品으로써 流入된 것인지, 아니면 半製品 또는 原石 형태로 이동한 것인지는 앞으로 정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되나 동삼동과 연대도패총 등에서 원석과 다량의 朴편들이 출토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원석을 입수해서 재지에서 가공 제작한 것으로 보여진다.

石匙(그림 4-6)는 제5층에서 한 점이 출토되었는데, 일부 파손되어 전체 형태는 알 수 없으나 잔존상태와 제작기법 등으로 보아 일본 승문문화의 특징적인 석기인 석시로 판단된다. 형태는 종형석시로 보이면 재질은 수정제이다 크기는 길이 3.2cm, 너비 2.9cm 정도이다.

이와 같은 형태의 석시는 연대도패총에서도 2점 출토되었는데, 이들 석시는 동삼동패총과 달리 평면 형태가 횡형을 이루고 있다. 동삼동과 연대도패총 출토 석시(그림 5-14·15)는 재질과 형태로 보아 일본 石匙를 모방하여 재지에서 제작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밖에 일본 승문문화와 관련을 가지는 것으로 생각되는 耳銿(土製耳飾)과 玦狀耳飾(石製耳飾)이 있으나 아직 자료가 부족하여 직접 승문문화와 연결시킬 수 있을지는 좀더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되어 본고에서는 일단 교류문물의 대상에서 제외시키기로 한다.

16) 山崎純男, <西北九州漁撈文化の特性> 《季刊考古學》25, 1988.

渡邊誠, 《繩文時代の漁業》2, 1973.



## 2. 朝島貝塚出土 繩文系遺物

朝島貝塚은 1970년 東亞大學校博物館의 시굴결과 櫛文土器와 無文土器, 三國時代 土器片 등이 출토되므로써 본격적으로 알려진 후, 1973년 해양대학교 신축공사에 따른 국립중앙박물관의 정식발굴조사가 실시되므로써 그 성격이 분명해지게 되었다.<sup>17)</sup>

한편, 국립중앙박물관의 조사후 해양대학교 신축시 서남쪽 일대에서 櫛文土器片들이 다량으로 출토되어 임돈 교수에 의해 수습되기도 하였다. 이때 수습된 유물은 1차적으로 임돈에 의해 보고되고<sup>18)</sup> 그후 재차 부산대학교 鄭澄元에 의해서 상세하게 발표되었다.<sup>19)</sup>

조도패총에서 출토된 유물은 貝釧, 漁網錘, 砥石, 黑曜石片, 隆起文土器, 指頭文土器, 瀛仙洞式의 刺突·押引文土器, 太線沈線文土器, 西海岸式의 幾何學的 點列文土器 등이 있으며 그밖에 고래뼈를 비롯한 동물뼈와 自然遺物도 출토되었다.

朝島貝塚에서 출토된 유물 가운데 주목되는 것은 日本 繩文土器와 관련을 가지는 것으로 생각되는 2점의 押型文土器片과 1점의 繩文土器片의 존재이다. 이들 자료는 채집품이고 출토상태를 알 수 없지만, 2점의 押型文土器는 기존의 자료에서 類例를 찾을 수 없는 것이다.

모두 胴部片이며(그림 1-27·28)은 胴體에 方形과 長方形의 格子文이 押型되어 있는 押型文土器이다.

押型文土器는 일본의 경우 繩文早期의 대표적 토기 型式 중의 하나이며 本州·四國·九州 등지에 분포하고 있다. 특징은 山形, 橢圓形, 格子文 등을 조각했던 施文具를 回轉 押捺하여 문양을

17) 韓炳三·李健茂, 《朝島貝塚》, 國立中央博物館, 1979.

18) 林墩, <朝島貝塚 出土遺物 小考> 《韓國海洋大學論文集》13, 1978.

19) 鄭澄元, <南海岸地方 初期櫛文土器의 一檢討> 《嶺南考古學》7, 1990.

鄭澄元, <朝島貝塚 出土 南海岸式 櫛文土器> 《考古歷史學誌》7, 東亞大學校博物館, 1991.

묘사한 것이다.<sup>20)</sup> (그림 1-26)은 작은 파편이라 자세하지 않으나 繩文이 施文되어 있는 형태이다. 施文형태로 보아 일본의 繩文土器와 매우 유사하다.

따라서 朝島출토 押型文土器 및 繩文土器의 位置와 性格에 대해서는 앞으로 더 검토되어야 하겠지만 이들 土器類는 지금까지 한반도에서는 확인되지 않은 型式이고, 일본의 繩文文化 早期 繩文土器와 유사한 점으로 미루어 보아 일단 本稿에서는 日本列島에서 流入되었을 가능성이 높은 繩文系遺物로 보고자 한다.

이와 더불어 原產地는 자세하지 않으나 數點의 黑曜石剝片도 九州에서 搬入된 繩文系遺物로 판단된다.<sup>21)</sup>

### 3. 凡方貝塚出土 繩文系遺物

범방패총은 1991년 부산시립박물관에서 발굴조사되었고 조사 결과 다양한 隆起文土器와 櫛文土器, 각종 骨角器, 結合式鈞針, 土偶, 裝身具, 石器類, 繩文系遺物 등이 출토되었고, 이밖에 最下層인 凡方 I 期層에서 土壙墓 1기를 비롯하여 爐址, 圓形集石遺構 등이 검출되었다.<sup>22)</sup>

특히, 양호한 상태의 층위에서 출토된 隆起文土器는 남해안 지역의 隆起文土器 연구에 중요한 자료가 되고 있다. 범방패총에서 출토된 繩文系遺物은 토기와 石器 2종류이며 그밖에 유물은 검출되지 않았다.

20) 片岡 肇, <押型文土器> 《繩文文化の研究》3, 雄山閣, 1994.

矢野健一, <押型文土器の起源と變遷> 《考古學雜誌》78-4, 1993.

21) 報告者は 朝島貝塚에서 출토된 黑曜石剝片을 石刃과 石鋸로 파악하고 있으나 논문에 게재된 사진으로 보는 한 석기제작 과정에서 생긴 박편으로 판단된다.(林墩, <朝島貝塚 出土遺物 小考> 《韓國海洋大學論文集》13, 1978.)

22) 河仁秀外, 《凡方貝塚》I, 釜山市立博物館, 1993.

河仁秀, 《凡方貝塚》II, 釜山市立博物館, 1996.

## 1) 繩文系土器

범방패층에서 출토된 繩文系土器는 10여점에 이르는데 대부분 九州地方의 轟B式系統의 屈曲型土器(그림 4-8·9·13)이며, 이 밖에 일본 繩文系土器로 생각되는 2점(그림 4-7·12)이 있다.

<그림 4-7>과 <그림 4-12>는 남해안지역에서 유례를 찾을 수 없는 新種의 土器인데 凡方 5·6<sup>23)</sup>층에서 출토되었다. <그림 4-6>은 尖底의 深鉢形土器로 器面 전체에 繩文 原體를 비슷듬히 굴러 繩文을 施文한 형태이다. 口緣部는 도면상으로 보아 수평을 이루나 보고서 간행후 재관찰한 결과 약간 山形으로 屈曲하는 波狀口緣을 하고 있다. 器面 내는 패각조정에 의한 조흔이 남아 있다.

지금까지 조사에로 보아 이 같은 형태의 櫛文土器는 국내에서 아직 확인되지 않았으며, 시문수법과 器形 등에서 유사한 예가 일본 繩文土器에서 확인되고 있다. 따라서 현재로서는 繩文系土器와의 관련성 여부는 단정할 수 없으나 그 가능성은 매우 높다고 생각된다.

附言하면, 이와 동일한 器形의 繩文土器는 九州地域에서도 확인되지 않고 있어 東日本地域 繩文土器와의 관련성도 배제할 수 없지만, 혹시 당시 범방의 櫛文土器人들이 兩地域의 교류 과정에서 획득된 繩文文化 요소내지 정보를 援用하여 在地에서 자체 제작했을 가능성은 없는지 향후 검토를 요하는 부분이다.

<그림 4-12>는 작은 파편이라 器形과 문양대의 특징을 알 수 없으나 잔존 상태로 보아 貝殼의 先端을 器面에 눌러 문양을 押捺한 一種의 貝殼文土器로 추정된다. 이와같은 문양의 토기는 국내에서는 확인되지 않고, 주로 일본 열도의 繩文土器에서 흔히

23) 凡方5·6층은 자체가 여러 時期의 유물들이 혼입되어 있어 出土遺物만으로 層位의 형성 時期를 판단할 수 없다. 따라서 유물의 型式을 알 수 있는 것은 별문제가 되지 않으나 型式이 不明인 토기의 경우 단순히 공반되는 유물만으로 시기를 결정하는데는 다소 문제가 있다고 생각된다. 5·6층에서 출토된 新種의 土器는 정확히 그 시기를 가름할 수는 없고 단지 층위의 形成過程과 함께 출토되는 櫛文土器의 대체적인 양상으로 보아 櫛文土器 中期 이후의 것임은 분명하다고 하겠다.

보이는 문양기법인 점으로 미루어 보아 繩文系土器일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된다.

이밖에 <그림 4-8·9·13>은 모두 九州地方의 轟B式系統의 屈曲型土器이다. 대부분 凡方 I·II 期層에서 隆起文土器류와 함께 출토되었는데, 이들 轟B式系토기들은 胎土, 燒成狀態, 文樣構成, 器形 등에서 在地化된 屈曲型土器로 생각된다.

## 2) 繩文系石器

繩文系石器로는 黑曜石製石鏃과 石刃狀剝片 등이 검출되었는데, 石鏃(그림 4-11)은 凡方 I 期層인 13층, 石刃狀剝片石器(그림 4-10)는 6층, 그밖에 다수의 黑曜石 박편들이 각층에서 출토되었다. 이들 黑曜石石器類는 黑曜石의 產地分析이 이루어지지 않아 繩文系石器인지의 여부를 정확히 알 수 없으나 동삼동패층의 黑曜石製石器와 마찬가지로 재질로 보아 九州産의 黑曜石을 이용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하겠다.

石鏃은 일본 것과 비슷하나 아직 이 지역의 石鏃에 대한 연구가 구체적으로 진행되지 않아 형태만 가지고 繩文系 여부를 단정할 수 없을 것으로 생각된다. 범방패층에서 다량의 黑曜石 박편들이 출토되고 있는 것으로 보아 九州地域 등에서 原石을 입수해서 在地에서 제작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판단된다.

## 4. 其他 遺蹟出土 繩文系遺物

前述한 교류문물 이외에 일본에서 搬入된 것으로 생각되는 黑曜石片들이 水佳里貝塚,<sup>24)</sup> 北亭貝塚,<sup>25)</sup> 多大浦貝塚,<sup>26)</sup> 大項貝

24) 鄭澄元外, <金海水佳里貝塚> I, 釜山大學校博物館, 1981.

25) 鄭澄元, <金海地方의 櫛文土器文化> 《于軒丁仲煥博士還曆記念論文集》, 1974.

26) 金龍基, <多大浦貝塚 發掘調査報告> 《釜大史學》2, 1971.

塚,<sup>27)</sup> 공수유적<sup>28)</sup> 등에서 출토되고 있다.

다대포와 북정, 대항패총에서 출토된 黑曜石製石器는 石器製作 과정에서 생긴 剝片이며, 水佳里貝塚 II층에서 출토된 黑曜石製石器는 얇은 剝片으로 만든 삼각형에 가까운 打製石器이다. 報告者는 打製石鏃으로 보고하고 있으나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이상의 자료들은 일정한 형태를 갖추지는 않았고 石器製作時 생긴 剝片으로 생각되지만 산지가 모두 日本의 구주산 특히 腰岳系일 가능성이 높은 점으로 미루어 보아 당시 문화교류내지 물자 이동에 관한 구체적인 物證이라는 점에서 또 흑요석 원석의 재지 내의 유통과 이동을 파악하는데 중요한 자료라고 생각된다.

### Ⅲ. 文物 交流와 背景

#### 1. 文物의 分布와 種類

이상에서 부산지역의 여러 遺蹟에서 출토된 交流關聯 遺物에 대해 살펴보고 약간의 검토를 하였다. 지금까지 확인된 교류관련 유적은 동삼동패총을 비롯한 조도·범방·다대포·북정·수가리·대항패총과 기장의 공수유적 등 모두 8개소에 달한다. 물론 이들 이외에 다른 유적에서도 검출될 가능성은 높으나 현 상태에서 확인 할 수 없다.

<표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남부지역 전체의 대외 관련 유적 21개소 중 절반 가량이 부산지역에 밀집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27) 釜山女子大學校博物館, 《加德島文化遺蹟地表調查報告》, 1992.

28) 釜山大學校博物館, 《機張郡文化遺蹟地表調查報告書》, 1998.

이같은 양상은 단순히 수치상의 우위 뿐만 아니라 관련 유적의 분포밀도상으로 보아도 당시 부산지역은 대외교류의 중심지였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생각된다.

이러한 생각은 최근 조사된 동삼동패총의 정화지역의 조사에서 동시기의 타유적에 비해 월등히 많은 다량의 繩文土器, 黑曜石製石器와 原石이 출토되고 있는 사실에서도 뒷받침되고 있다.

부산지역에서의 교류 관련 유적과 유물의 밀집분포는 일본 구주지역과 근거리에 위치한다는 지리적인 조건도 물론 작용하였겠지만 동삼동패총에서 대량으로 생산 제작된 貝釧의 공급과도 깊은 관련이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對馬島의 佐賀貝塚에서 출토된 韓半島産의 조개로 만든 貝釧은 현재로서는 단정할 수 없으나 동삼동패총 집단에서 후요석과 교역용으로 공급되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추정된다.

<그림 6>은 韓日 양지역에서 출토된 櫛文系와 繩文系遺物の 分布狀態를 표시한 것이다. 한국출토 繩文系遺物は 濟州道와 黑山島를 제외하면 모두 東南海岸地域에 密集 分布하는 樣相을 보이고, 日本出土 櫛文系遺物は 한반도 南岸과 마주하는 西北九州의 海岸과 對馬島 西岸地域에 集中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交流遺物の 分布狀態는 당시 양지역의 交流루트와 主交流地 뿐만 아니라 交流의 主體가 양지역의 해안지대에 居住하는 漁民임을 반영하는 것으로 추정되며, 특히 후술하는 바와 같이 韓日 新石器文化의 交流가 共通的인 生業環境속에서 漁撈 活動을 통한 構造的이고 持續的인 接觸 結果임을 보여주는 것이라 하겠다.

그러면 韓日 兩地域에서 출토된 交流文物의 種類와 時期別 交流 內容에 대해 부산지역을 중심으로 동남해안지역의 사례를 포함하여 간단히 언급해두기로 하겠다.

<표 1·2>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한일 양지역의 교류 관련유물은 대부분 토기류와 석기류이고, 그밖에 장신구와 어구, 자연유

물 등이 일부 확인되고 있다.

日本 출토 櫛文系遺物은 <표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佐賀貝塚의 骨製頸飾과 貝釧, 轟貝塚의 가리비조개, 大矢遺蹟의 結合式釣針을 제외하고는 모두 土器類이다. 이들 資料에는 舶載된 것과 櫛文文化의 영향으로 在地化된 것도 있다.

九州地域에서 출토된 櫛文系土器는 早期 後半代의 各種 隆起文土器, 前期의 瀛仙洞式土器, 中期의 太線沈線文土器(水佳里 I 式土器), 後期の 退化沈線文土器(水佳里 II 式土器) 등이 있으며, 時期的으로 櫛文文化 早期에서 後期에 걸쳐 있다.

이들 櫛文系土器의 時期別 出土樣相을 살펴보면, 九州 本土의 경우는 隆起文土器와 瀛仙洞式系土器가 主流를 이루고, 對馬島와 壹岐의 경우는 早期와 前期의 櫛文系土器도 다수 分布하고 있으나 櫛文土器 中期 以後의 櫛文土器 關聯遺蹟의 비율이 九州 本土보다 증가하는 경향을 나타낸다.

그리고 九州地域 繩文遺蹟 중에서 현재 조사된 櫛文系遺物의 出土樣相을 時期別로 검토해 보면 早期와 前期의 櫛文系土器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물론 이들 자료 중에는 櫛文土器의 영향을 받은 것과 在地化한 것도 있다.

이상의 九州地域 繩文遺蹟에서 출토된 櫛文系遺物의 時期別樣相을 통해 볼 때 韓半島 동남해안지역과 日本 九州地域의 文化交流는 早期에서 前期에 걸쳐 集中的으로 이루어지고,<sup>29)</sup> 前期以後 後期까지는 間歇的으로 進行되었던 것으로 想定된다. 특히 二重口緣土器와 短斜線文土器가 전혀 보이지 않는 것으로 보아 櫛文文化의 晚期 段階는 九州地域으로의 渡航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은 아닌가 한다.

29) 會畑式土器의 先行 型式인 西唐津式土器를 南海岸의 瀛仙洞式土器文化의 一部 要素가 在地化한 것으로 본다면 新石器時代의 韓日交流關係는 櫛文土器 前期段階에 가장 밀접하게 이루어 졌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후기 즐문토기인의 구주지역으로의 이동 여부는 향후 일본측의 조사 결과에 따라 분명해지겠지만은 동삼동패총을 비롯한 상노대도패총의 繩文文化 後期(櫛文晚期)의 승문토기가 다수 출토되는 사실로 보아 남해안지역의 즐문토기 만기 단계에도 대외교류 활동이 활발히 전개되었음을 분명한 것 같다.

이같은 時期別 交流 樣相은 <표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韓半島 南海岸의 繩文系遺物에서도 간취된다.

한편 韓半島의 東南海岸地域에서 출토된 繩文系遺物의 종류는 繩文土器를 비롯하여 黑曜石製石鏃, 石匙, 石鋸 등의 各種 石器와 西北九州型 釣針, 離頭銚 등의 漁具類가 있으나 量的으로나 分布上으로 보아 土器와 黑曜石製石器가 主流를 이룬다.

繩文系土器로는 繩文早期의 세노강式土器, 押型土器, 前期의 轟B式土器, 曾畑式土器, 中期의 船元II式土器, 阿高式土器, 中津式土器, 後期の 南福寺式土器 등이 있는데 이들 繩文土器는 時期的으로 櫛文土器 早期에서 後期에 걸치고 있다. 대부분 자료들이 片들로 출토되어 전체 특징은 자세하지 않으나 일부 유물 즉 소위 屈曲型土器로 불리는 것 등을 제외하고는 胎土, 燒成, 文樣構成, 器形 등으로 보아 九州地域에서 流入된 것으로 보아도 좋다고 생각된다.

繩文系石器는 前述한 바와 같이 黑曜石製石鏃, 剝片石器, 石鋸, 石匙 등이 있는데 이 중에는 직접 九州地域에서 搬入된 것과 繩文石器의 영향으로 在地에서 만든 것이 있는데, 前者의 代表的인 것이 黑曜石製石器이고 後者의 例가 繩文文化의 特徵的 石器인 石匙이다.

이상에서 살펴본 한일 兩地域의 관련 유물들이 어떠한 메카니즘하에서 交流되고 流通되었는가는 현재로서는 자세히 알 수 없다. 그러나 어떠한 형태로든 兩地域民들은 상호 필요성에 의해 他地의 特産物의 入手를 원했고, 그러한 과정 속에서 다양한 物品들이 相對地域에 流入되고 供給되었을 것임은 분명하다.



## &lt; 丑 1 &gt; 韓半島 東南海岸 出土 繩文系遺物

번호	遺蹟	出土遺物	時期
1	東三洞貝塚	세노강식土器, 轟B式土器, 曾畑式土器 阿高式土器, 鐘カ崎土器, 黑曜石石鏃 黑曜石石鏃, 西北九州型離頭鈎,	繩文前期 ~ 後期
2	朝島貝塚	壓型文土器, 繩文土器	繩文早期 ~ ?
3	凡方貝塚	屈曲型土器(轟B式系土器), 繩文土器, 貝殼文土器, 黑曜石石鏃	繩文前期 ~ ?
4	新岩里遺蹟	屈曲型土器(轟B式系土器), 阿高式土器	繩文前期 ~ 中期
5	新岩里 III 地區遺蹟	黑曜石石鏃,	繩文中期
6	煙臺島貝塚	西北九州型離頭鈎頭, 石匙, 轟B式土器 黑曜石石鏃	繩文前期
7	上老大島貝塚	阿高式土器, 中津式土器, 屈曲型土器 (轟B式系土器), 曾畑式系土器, 石鏃 組 合式石鈎), 西北九州型釣針	繩文前期 ~ 後期
8	欲知島貝塚	西北九州型離頭鈎頭, 黑曜石石鏃, 曾 畑式土器	繩文前期 ~ 後期
9	黑山諸島貝塚	프르도曾畑式土器	繩文前期後半
10	高山里遺蹟	五角形石鏃	繩文早期
11	安島가遺蹟	石鏃, 黑曜石剝片	繩文後期?
12	水佳里貝塚	黑曜石製石器	繩文後期
13	松島貝塚	黑曜石剝片	繩文前期
14	多大浦貝塚	黑曜石剝片	繩文中期?
15	大項貝塚	黑曜石剝片	繩文中期?
16	晋州대촌遺蹟	黑曜石製 剝片石器	繩文後期
17	牛峰里遺蹟	黑曜石剝片	繩文前期
18	山登貝塚	黑曜石剝片	繩文後期
19	侍郎里 공수C遺蹟	黑曜石剝片	繩文前期?
20	北亭貝塚	黑曜石剝片	繩文前期?
21	울산 세죽패총	黑曜石製石鏃	繩文前期

## &lt; Ⅱ 2 &gt; 日本 九州出土 櫛文系遺物

번호	遺蹟	出土遺物	時期
1	越高遺蹟	隆起文系土器	櫛文土器早期
2	越高尾崎遺蹟	隆起文系土器	櫛文土器早期
3	夫婦石遺蹟	瀛仙洞式土器, 太線沈線文系土器(水佳里Ⅰ式土器), 把手附土器	櫛文土器前期-中期
4	佐賀貝塚	骨製頸飾, 短斜集線文土器, 貝釧	櫛文土器中期
5	누가시遺蹟	瀛仙洞式土器, 沈線文土器(水佳里Ⅱ式土器), 把手附土器	櫛文土器前期-後期
6	松崎遺蹟	水佳里Ⅰ式土器	櫛文土器中期
7	轟貝塚	隆起文土器, 瀛仙洞式土器(刺突點列文土器), 비단가리비조개	櫛文土器早期-前期
8	西唐津海底遺蹟	瀛仙洞式系土器	櫛文土器前期
9	白浜遺蹟	彩色土器(隆起文系土器)	櫛文土器早期
10	쓰쿠메노하나遺蹟	隆起文系 및 瀛仙洞式土器	櫛文土器早期-前期
11	姬神社遺蹟	瀛仙洞式系土器	櫛文土器前期
12	伊木力遺蹟	瀛仙洞式系土器	櫛文土器前期
13	深堀遺蹟	瀛仙洞式系土器	櫛文土器前期
14	脇岬遺蹟	瀛仙洞式系土器	櫛文土器前期
15	白蛇山岩陰遺蹟	隆起文系土器	櫛文土器早期
16	盜人岩遺蹟	瀛仙洞式系土器	櫛文土器前期
17	菜畑遺蹟	瀛仙洞式系土器	櫛文土器前期
18	天神山貝塚	隆起文系土器	櫛文土器早期
19	桑原飛櫛貝塚	水佳里Ⅱ式土器(把手部土器)	櫛文土器後期
20	大矢遺蹟	結合式鈎針 軸部	櫛文土器後期
21	小川島遺蹟	水佳里Ⅱ式土器(把手附土器)	櫛文土器後期
22	吉田貝塚	水佳里Ⅱ式土器(退化沈線文土器)	櫛文土器後期
23	曾畑貝塚	瀛仙洞式系土器	櫛文土器前期
24	赤松海底遺蹟	隆起文系土器, 水佳里ⅠⅡ式土器	櫛文土器早期-後期
25	木坂海神社遺蹟	瀛仙洞式系土器	櫛文土器前期

## 2. 交流의 背景

韓半島와 日本은 바다를 사이에 두고 인접해 위치하는 地理的인 環境때문에 대륙의 다른 지역과는 달리 文化交流라든가 傳播, 인간의 이동이 서서히 漸進的으로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바다라는 장애물은, 이를 잘 이용한다면 오히려 육지보다 문화의 흐름이나 교류가 더 빠르게 진행될 수 있는 잇점도 없는 것은 아니다.

지금과 같은 地理的인 조건을 갖추기 前인 後氷期 이전의 한반도와 일본열도가 陸地로 연결되어 있었던 時期에 兩地域에 거주했던 舊石器人들은 자유로이 왕래하면서 필요한 식량과 良質의 石材를 구했을 것으로 생각된다. 현재와 같은 상황이 전개된 後期舊石器時代가 되면 바다라는 자연적인 장애물로 兩地域으로의 移動은 중단되었을 것으로 생각되나 최근 발굴 성과와 연구 결과 後期舊石器時代부터 이미 바다를 이용한 文物의 이동이 이루어지고 있었음이 밝혀지고 있다.<sup>30)</sup>

일본의 東京에서 南으로 약170km 떨어진 海上에 위치하는 神津島의 黑曜石이 南關東地域의 여러 유적으로 운반된 것 이라든지,<sup>31)</sup> 韓半島 中部地域의 수양개유적 등에서 출토되고 있는 後期舊石器의 剝片尖頭器와 같은 型式의 石器가 日本 九州와 山口縣을 중심으로 출토되고 있다는 것<sup>32)</sup>은 이미 이 時期에 渡航技術과 航海에 이용된 丸木舟나 뗏목같은 渡航具가 존재하고 있었음을 보여주는 反證 資料라고 할 수 있다.

결국 後期舊石器時代의 바다를 이용하고 이를 통한 物資의 移

30) 岡村道雄, <總論> 《ここまでわかった日本の先史時代》, 角川書店, 1997.

31) 小田靜夫, <黑曜石> 《繩文文化の研究》8, 雄山閣, 1995.

32) 小畑弘己, <倭人以前-石器が語る交流-> 《九州歴史》11, 九州歴史大學講座, 1994.

動은 本稿의 主題인 新石器時代의 대외교류 이전에 이미 集團移動을 포함한 文物의 交流를 가능케했던 정보 네트워크의 존재 뿐만 아니라 향후 兩地域간 문화교류의 틀이 이미 마련되고 있었음을 보여 주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을 것이다.

新石器時代의 韓日 兩地域의 文物移動과 文化交流 내용은 이미 설명한 바와 같이 兩地域의 관련 유적과 유물의 존재에서 증명되고 있고, 交流의 직접적인 수단으로 이용되었을 것으로 보여지는 일본 九州의 伊木力遺蹟 출토 丸木舟<sup>33)</sup> 한반도와 일본열도의 바다를 뛰어 넘는 교류의 존재를 구체적으로 확인한 事例라 할 수 있을 것이다.

부산을 포함한 동남해안지역과 일본 구주지역의 교류의 가장 큰 장애물인 大韓海峽의 渡航과 航海는 兩地域의 海峽에 점점이 위치하는 對馬島와 壹岐 섬을 징검다리로서 하여 海流나 季節風 또는 天文地理를 이용하여 가능했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sup>34)</sup>

예를 들면 海流를 잘 이용하면서 부산과의 巨濟島 주변 海域에서 對馬島의 北西海岸을 목표로 하고, 대마도 海岸線을 따라 이동하여 壹岐섬을 경유해서 南下하면 東松浦半島에서 唐津灣 주변에 쉽게 도달할 수 있다. 이 같은 항해가 남해안에서 九州해안에 이르는 가장 짧은 코스이자 효율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반대로 九州해안에서 남해안에 이르는 경우는 대마도의 南西

33) 多良見町教育委員會, 《伊木力遺蹟》, 1990.

繩文前期 中葉으로 생각되는 伊木力유적의 丸木舟는 底部만 출토되어 전체 구조와 형태는 자세하지 않다. 잔존길이 6.5m이며 배 주위에서 外海의 漁撈具로 생각되는 중량 2kg이 넘는 石錘가 검출된 것으로 보아 이 丸木舟는 河川의 이동용이 아니라 外海를 이동하는데 사용된 배로 생각되고 있다.

34) 尹明喆, <해로를 통한 先史時代 韓·日 兩地域의 文化接觸 가능성 검토> 《韓國上古史學報》2, 1989.

氏는 船舶製造術, 航海術 또는 航海道具가 발달하기 이전인 先史時代라고도 안정성 있는 기본적인 항해수단만 있으면 자연조건을 이용 내지 응용하면서 양지역의 접촉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海岸에서 北西 방향으로 진행하면서 大韓海流를 타고 航海할 경우는 東南海岸의 釜山 부근에 도달할 수 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sup>35)</sup>

이밖에 자연 조건에 따라 여러 航海 코스가 있을 것으로 생각되나 전술한 航海코스는 이 지역에서 조사된 韓日 兩地域의 유물 출토 分布狀態(그림 6)와 일치하는 것으로 보아 新石器時代 이래 韓日 兩地域民이 자주 이용하였던 航海루트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상에서 간단하게 살펴본 내용들이 新石器時代 兩地域의 문화교류의 蓋然性 혹은 直·間接的인 근거로 간주할 수 있다면, 비록 거리상으로 가까운 곳에 위치하고 있지만 兩地域의 新石器人들이 大韓海峽이라는 障礙와 渡航의 위험을 감수하면서 상호 왕래한 이유 내지 交流의 背景은 무엇인가.

이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가능성을 생각할 수 있으나, 다음과 같은 점들이 兩地域간에 이루어진 交流의 背景으로 작용하지 않았을까 한다.

바다를 사이에 둔 한반도 南部와 일본 九州지역의 交流關係는 단순히 偶發的인 것이 아니라 自然環境 및 生態條件의 類似性和 공통된 狩獵採集의 生業 經濟下에서 海岸地域을 중심으로 전개된 漁撈活動를 통한 構造的인 접촉<sup>36)</sup>에서 그 배경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당시 兩地域의 漁民들은 大韓海峽이라는 漁場을 共有하고 상호 생업기술과 생활정보를 주고 받으며서 자연스럽게 또는 상호 필요성에 의해 지속적으로 접촉하는 가운데 문화교류라는 큰 틀을 형성 발전시켰던 것으로 보인다.<sup>37)</sup>

35) 廣瀨雄一, <解説> 《繩文のシンフォニー》, 名護屋城博物館, 1994.

36) 廣瀨雄一, <韓國南岸地域の櫛目土器の研究> 《考古學の世界》3, 1984.

37) 島津義昭, <日韓の文物交流> 《季刊考古學》38, 1992.

특히, 大韓暖流와 리만해류가 만나는 大韓海峽 부근의 海域은 兩地域의 共同漁場으로써 뿐만아니라 兩地域民이 접촉하고 나아가 兩地域 문화가 交叉내지 交流하는 空間的인 역할을 했을 것이다. 兩地域의 貝塚遺蹟에서도 출토되고 있는 外洋性 魚種과 海獸類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들 魚獸類들은 外海 漁撈활동의 産物이며 前述한 내용을 反證하는 좋은 자료라고 생각된다.

동삼동·범방·연대도·상노대도패총 등 여러 패총 유적에서는 상어, 방어, 다랑어, 참돔, 돌고래, 물개 등의 外洋性 魚種과 海獸類들이 출토되고 있고, 이와 類似한 현상이 일본 西北九州의 貝塚遺蹟에서 확인되고 있다. 兩地域의 漁民들은 이와 같은 魚種과 海獸類를 포획하기 위해서는 外海로의 進出이 불가피하였고 그 결과 다양한 魚種이 棲息하고 있는 遠海인 대한해협에서의 접촉은 당연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sup>38)</sup>

게다가 한반도 남해안과는 咫尺之間에 위치하는 對馬島는 兩地域 문화교류의 中間地 혹은 窓口로서 뿐만 아니라 交流를 加速化하는 역할을 담당했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와 같이 漁撈活動을 통한 構造的인 접촉과 兩地域의 공통적인 生業環境은 향후 지속적인 문화교류의 기반이 되었음이 분명하며,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상호 物資交流 내지는 物物交換이라는 原始的인 交易시스템이 형성되고 이것이 소위 文化交流라는 構造的 틀을 만드는 直接的인 원인을 제공했을 것으로 생각된다.

38) 李相均은 新石器時代 兩地域의 文化交流는 照葉樹林帶의 領域, 同等한 지리, 生態環境의 조건하에서 必然的으로 일어날 수 밖에 없었던 現象으로 보고있다. (李相均, <동아시아속에서의 韓國新石器文化> 《先史와 古代》8, 1997.)

## IV. 黑曜石의 交易

여기서는 일본 구주와 한반도 동남해안지역과 交流의 한 斷面을 구체적으로 보여 주며, 문화교류의 중요한 역할 혹은 그 배경이 되었을 것으로 생각되는 物資交流에 대해 부산과 남해안 제유적에서 출토된 黑曜石 또는 黑曜石製石器에 대해 검토를 하므로써 진술한 漁撈활동을 통해 형성된 兩地域의 문화교류 構造의 一面을 살펴보고자 한다.

地域間 혹은 集團間에 발생하는 物資의 流通 즉 交易關係는 供給機能과 需要慾望이 상호 일치하는 가운데서 성립하게 된다. 先史時代에 있어서 이러한 物資流通의 原則을 잘 반영하는 유물 중의 하나가 黑曜石이 아닌가 한다. 흑요석은 주지하는 바와 같이 특정 지역에서만 產出되고 그것이 갖는 특성으로 인해 石器의 재료로써 效用價値가 매우 높은 石材이다. 따라서 흑요석은 舊石器時代부터 石器 加工의 주요 石材로 지역간 혹은 집단간의 交易 對象物로써 중요한 위치를 차지해 왔다.

일본 열도에서의 흑요석 產地는 近畿地方을 제외한 北海島, 本州中部, 九州地方에 집중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확인된 產出地는 40개소를 넘고 있다.<sup>39)</sup> 이에 반해 한반도는 일본열도와 달리 地質의 차이로 극히 限定된 지역에서만 발견되고 있는데 白頭山을 중심으로 하는 함북 명주·길주·회령과 제주도·울릉도 등에 그 產地가 알려져 있다.

따라서 本稿의 검토 대상인 한반도 남부 해안지역에는 현재까지 產出地가 확인되지 않고 있다. 일부 연구자료에는 영일만 일대와 義城 金城山 주변에서 흑요석이 산출되고 있다고 하나 石器用으로 사용 가능한 것인지 혹은 진정한 흑요석인지의 여부는

39) 小田靜夫, <黑曜石> 《繩文文化の研究》8, 雄山閣, 1995.

불투명한 실정이다.<sup>40)</sup>

그렇다면 한반도 남부해안지역의 여러 유적에서 출토되고 있는 흑요석은 어디서 온 것인가. 현재까지 新石器時代の 유적에서 출토된 일부 흑요석의 分析 결과 原產地가 일본 九州지역으로 판명되고 있다.<sup>41)</sup>

<표 3>은 신석기시대 남부해안지역에서 현재까지 조사된 흑요석 출토 유적 및 유물의 一覽인데 이 중에서 分析된 資料는 모두가 일본 九州產이고, 특히 九州의 代表的인 黑曜石 產地인 腰岳系인 점이 주목된다. 일부이지만 東三洞과 欲知島貝塚에서 針尾島系와 平人觸, 牟田, 姬島系도 확인되고 있다.<sup>42)</sup> 이밖에 科學的 분석이 이루어지지 않아 정확한 山地 推定은 곤란하나 다량의 흑요석이 출토된 凡方貝塚 출토품을 비롯한 대부분의 흑요석들은 色調와 質感으로 보아 九州產으로 보여진다.<sup>43)</sup>

이들 黑曜石과 石器들은 일본 西北九州地方에서 大韓海峽을 건너 200km 남짓한 거리를 이동하여 동남해안지역에 搬入되었음은 분명하다. 이러한 사실은 新石器時代 九州와 한반도 南部海岸

40) 有光教一, <朝鮮櫛目文土器の研究> 《有光教一著作集》1, 同朋舍, 1990.

大邱大學校博物館, 《義城郡文化遺蹟地表調査報告書》, 1987.

金元龍, <各地方의 土器·石器·骨角器> 《韓國史》1, 國史編纂委員會, 1981.

41) 西谷正, <朝鮮半島の黑曜石について> 《賀川光夫先生還曆紀念論集》, 1982.

坂田邦洋, <九州產黑曜石からみた先史時代の交易について> 《賀川光夫先生還曆紀念論集》, 1982.

潮見 浩, <考古學班調査報告-石器原材としての姬島產黑曜石をめくって-> 《內海文化研究紀要》8, 1980.

國立晉州博物館, 《煙臺島》I, 1993.

42) 동삼동패총에서는 동남해안지역 어떤 유적보다도 다량의 흑요석과 흑요석 석기가 출토되었으나 연구자에 의한 개별적인 분석으로 정확한 산지 추정기 불확실한 편이다. 1999년도 동삼동 패총정화지역 조사에서도 다량의 흑요석석기와 박편, 원석 등이 출토되었는데, 육안으로 실물을 관찰한 일본인 연구자들에 의하면 동삼동패총 흑요석의 產地는 거의 九州의 腰岳系라고 한다.

43) 현재까지 북한지역에서 흑요석석기가 발굴된 곳은 함북의 서포항, 범의구석, 농포리유적과 함남의 강상리유적, 자강도의 토성리유적 등이 있으면 이들 흑요석석기의 산지는 백두산계로 추정된다.



地域을 연결하는 黑曜石 交易網이 形成되어 있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陸路가 아닌 바다라는 험한 장애물을 뛰어 넘어 遠距離까지 흑요석이 이동되었다는 것은 地域間의 文化交流 裏面에 어떤 形態의 交易시스템이 작용하고 있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 하겠다.

<표 3> 南海岸地方 黑曜石製石器 出土遺蹟

번호	遺蹟	出土遺物	備考
1	東三洞貝塚	石鋸, 石銛, 石鏃, 剝片	腰岳系, 姬島系, 針尾島系, 牟田系 平人觸
2	朝島貝塚	剝片	
3	凡方貝塚	石鏃, 石刃, 剝片	
4	多大浦貝塚	剝片	
5	新岩里 III地區遺蹟	石鏃,	
6	煙臺島貝塚	石鏃, 原石, 剝片	腰岳系
7	上老大島貝塚	石鋸, 石銛	腰岳系
8	欲知島貝塚	石銛(大形石鏃), 石鏃	針尾島産
9	松島貝塚	剝片	腰岳系
10	水佳里貝塚	剝片(石鏃?)	腰岳系
11	安島가遺蹟	石鋸, 剝片	
12	大項貝塚	剝片	
13	대촌유적	石刃狀 剝片石器	
14	牛峰里遺蹟	剝片	
15	山登貝塚	剝片	
16	공수C유적	剝片	
17	北亭貝塚	剝片	
18	울산 세죽패총	石鏃	

그러면 九州의 特産物인 흑요석이 한반도 남부 해안지역의 주요 交易物品으로써 어떠한 메카니즘과 형태로 남부지방에 流通되었는가. 이에 대한 구체적인 성격 규명은 後日을 기다릴 수밖에 없지만 일단 여기서는 현재까지의 조사 성과를 참조하여 그 가능성의 일부를 類推해 보고자 한다.

한반도 동남해안 지역에서 현재까지 확인된 흑요석 관련 유적과 유물은 <표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모두 18개소에 달하나, 앞으로 더 조사가 이루어진다면 그 수는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

<그림 7>의 흑요석의 分布 상태를 보면 모두 東南海岸地域에 密集되어 있고 內陸地域에서는 晉州 대촌유적을 제외하고는 거의 출토되지 않고 있다. 일본의 경우, 九州출토 櫛文系遺物은 동남해안지역과 마주보고 있는 西北九州地方에 集中 분포하고 있다. 兩地域의 관련 遺蹟과 遺物의 이 같은 분포 양상은 당시의 交流 主對象地域이 한반도의 동남해안지역과 九州의 西北九州地域이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 생각된다.

한편, 한반도 동남해안지역의 여러 유적에서 출토된 黑曜石製石器와 剝片들의 출토상황을 보면 그 使用量에 있어서 주목되는 점이 관찰된다. 지금까지 조사된 18개소의 유적 중에서 흑요석이 가장 많이 출토되고, 時期的으로도 고루 출토되고 있는 유적은 釜山の 東三洞, 凡方, 南海岸의 欲知島, 煙臺島貝塚을 들 수가 있다.

동삼동패총은 정식 보고서가 간행되지 않아 흑요석의 전체 출토량과 石器의 종류는 불명이나 일부 자료와 지표조사 결과에 의하면 原石을 포함하여 상당량의 黑曜石製石器와 剝片들이 출토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범방패총의 경우는 完成品은 石鏃 등 2점에 불과하나 石器 제작과정에서 생긴 破片들이 상당량 출토되었다.

연대도패총은 原石을 포함하여 수십점의 石鏃과 剝片들이 출토되었는데, 특히 발굴된 41점의 石鏃 중 黑曜石製가 36점(86%)이나 출토되어 石鏃 製作에 黑曜石이 많이 사용되었음을 보여

주고 있다. 옥지도패총 출토 석기의 전체 巖質 構成을 보면 혼펠스(80%) 다음으로 흑요석(10.7%)이 높은 비율을 나타내고, 출토된 12점의 石鏃 중 黑曜石製가 차지하는 비율이 66%나 된다.

이 밖의 유적에서는 극히 소량의 剝片과 石器만 출토되어 前述한 동삼동·연대도·범방패총등의 유적과는 대조를 이루고 있다. 부산을 중심으로 하는 해안지역의 경우 세죽·조도·다대포·북정·대항·수가리패총 등의 유적에서는 석촉과 數點의 剝片類만 출토되고 있고, 남해안지방의 경우는 부산 주변과 마찬가지로 송도·안도·상노대도·산등·대촌유적 등에서 소량의 剝片과 석기만 출토되고 있다.

이상의 내용을 다시 정리하면, 동남해안지역에서 출토된 흑요석은 동삼동, 연대도패총 등 일부 유적과 그밖의 유적과는 흑요석의 사용 내지는 출토양에서 차이를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 흑요석의 出土樣相에서 나타나는 이러한 現象은 結論적으로 말해 흑요석의 入手 方法에 기인함과 동시에 흑요석이 原產地 혹은 中間 供給地에서 遠隔地로 傳播되는 과정에 原石量이 減少하는 樣相을 반영하는 것이 아닌가 한다.<sup>44)</sup>

다시 말하면, 南部海岸 各地域에 거주하던 모든 集團이 獨自적으로 흑요석을 입수하여 사용하기에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흑요석 자체가 쉽게 구해서 사용할 수 있는 물품이 아니기 때문에 搬入된 흑요석은 特定的 據點集團을 중심으로 우선적으로 공급되었을 것이다. 그런 다음 주변 領域으로 확산되기 때문에 中心部에서 멀어질수록 그 供給量과 使用量은 자연히 減少할 수 밖에 없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러한 推論이 가능하다면, 前述한 부산지역의 동삼동과 범방패총을 비롯한 남해안의 옥지도, 연대도패총은 이 지역의 據點集團으로써 九州地域에서 搬入된 흑요석의 在地 供給地로써 역할

44) 小田靜夫, <黑曜石> 《繩文文化の研究》8, 雄山閣, 1995.

을 한 것으로 생각된다. 上記의 遺蹟들은 수천년 동안 장기간에 걸쳐 형성된 대규모 패총이라는 점과 여기서 다양한 繩文系遺物이 출토되고 있다는 점 등에서 그 밖의 다른 유적과 여러 면에서 優位를 점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동삼동·연대도패총 등은 당시 當該地域의 據點遺蹟으로의 위치 뿐만 아니라 특히 在地에서 黑曜石 供給의 中間基地 역할을 한 것으로 想定된다.

그러면 동남해안지역에 搬入된 흑요석은 어떠한 方法으로 供給되고, 어떠한 形態로 交易되었는가 이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다.

九州地域에서 產出된 黑曜石이 어떠한 方法으로 동남해안지역에 공급되었는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로 생각할 수 있으나 一般論의인 입장에서 볼 때 다음 몇가지 방법이 想定된다.

첫째는 동남해안의 諸集團이 獨自的으로九州地域으로 건너가 原石 또는 完成品을 直接 入手하는 방법이고, 둘째는 對馬島 등 中間地의 集團을 媒介로 間接的으로 原石 또는 完製品을 入手하는 방법이다. 셋째는 間接 入手의 한 형태이지만, 在地의 據點集團이나 特定集團으로부터 原石 또는 完製品을 공급받는 방법이다.

남부해안지역에서 흑요석의 입수 방법은 위의 세가지 모두 가능하다고 생각된다. 첫번째의 경우, 九州의 西北部地域를 중심으로 交流의 副産物로써 남겨진 繩文系遺物들이 곳곳에 散在하고 있는 점은 직접 입수의 가능성을 뒷받침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경우 渡航의 위험을 감수하면서 200km를 넘는 원거리를 이동해야하는 제약이 따르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이루어졌다고 보기 힘들다.

두번째의 경우는 위험 부담율의 감소와 짧은 시간에 공급을 원활히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흑요석의 입수에 많이 이용되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세번째의 경우는 이미 그 가능성에 대해서

설명하였기 때문에 여기서는 두 번째 가능성에 대해 약간의 검토를 하고자 한다.

두번째 방법은 간접적으로 흑요석을 공급받는 입장이기 때문에 量과 質에 선택의 폭이 좁은 短點도 예상되나 物量의 供給이 신속히 이루어지고, 入手 時間이 짧다는 長點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당시 南部海岸의 新石器人들은 장거리를 이동하여 原產地에서 직접 入手하는 방법보다 對馬島 등의 中間地를 媒介로 한 間接的 方法을 선택하였을 것임은 충분히 예상된다.

그러면 間接 入手는 어떠한 형태로 이루어 졌는가, 結論的으로 말해 筆者들은 東南海岸에서 移住하여 對馬島에 居住한 新石器人 다시 말하면 越高遺蹟을 대표로 하는 櫛文系集團을 통해 흑요석의 공급이 이루어 졌다고 생각하고 있다.

물론 新石器時代 全時期를 통해 一律的으로 對馬島의 櫛文系集團에 의해 이루어 졌을 것으로는 생각하지 않는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는 後日로 미루지만 적어도 櫛文土器 早期의 경우는 對馬島에 居住하는 櫛文系集團을 媒介로 黑曜石이 남부해안의 各 集團에 공급되고, 그에 따른 黑曜石 交易網이 형성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越高遺蹟은 前述한 바와 같이 출토유물의 2,600여점이 隆起文系土器(그림 8)이고 繩文土器는 前平式土器 등 7점에 불과한 점, 특히 隆起文土器의 器形, 製作手法, 文樣帶의 형태 등에서 한반도 남부지방 隆起文土器의 특징을 그대로 보여 주고 있다는 점에서 對馬島에 居住한 櫛文土器人의 遺蹟임이 분명하다고 하겠다.

越高遺蹟의 櫛文土器人들은 漁業活動의 中間寄着地로서 혹은 각종 石器製作에 필요한 흑요석의 石材를 얻기 위해 對馬島에 移住하여 일본열도의 生活情報와 物資를 本土에 전해주는 역할을 했을 것으로 상정된다.

越高遺蹟에서는 剝片을 포함하여 226점의 石器類가 출토되었

는데, 頁巖製가 136점으로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 흑요석이 81점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출토된 81점의 흑요석의 產地 構成을 보면 腰岳系가 69점으로 85%를 차지하고, 그 다음으로 壹岐(8점: 10%), 針尾島系(4점: 5%)순으로 되어 있다.

越高遺蹟의 黑曜石 石材의 利用 實態를 그대로 이해한다면 在地와 가까운 壹岐産 보다는 遠隔地에 위치하는 九州 本土의 腰岳産을 選好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리고 여러 產地의 黑曜石을 並用하면서 九州 최대의 產地인 腰岳産의 것을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점 등은 對馬島 越高유적의 성격을 잘 반영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越高유적의 이러한 일면은 한반도 南部와 九州 本土를 연결하는 物資交流 내지 交易 仲介地로서의 성격을 나타내는 것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앞에서 언급한대로 한반도 동남해안지역의 黑曜石의 入手는 對馬島에 居住한 櫛文系集團을 통해 간접적으로 이루어 지거나, 在地의 特定集團 내지 據點集團을 통해 주변 지역으로 보급된 것으로 추정된다. 이러한 흑요석의 입수 형태는 동삼동패층에서 繩文後期の 繩文土器가 다량으로 출토되는 것으로 보아 櫛文土器 後·晩期까지 계속된 것으로 생각된다.<sup>45)</sup>

한반도 남부해안지역에 搬入된 흑요석은 어떠한 상태로 공급되었는가, 다시 말하면 原石으로 輸入된 것인지, 아니면 半製品 혹은 完成品 형태로 搬入되었는지 여부에 대해 간단히 언급해두기로 하겠다.

흑요석의 搬入狀態는 위의 3가지 방법이 모두 가능하지만 남해안지역의 여러 유적에서 출토되는 石器의 種類나 出土樣相으로 보아 原石 형태로 交易되어 供給되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생

45) 越高遺蹟 이후 같은 성격을 갖는 櫛文系集團의 존재가 예상되나 현재로서는 단정할 수 없으며, 남부지방 中期櫛文土器가 主體를 이루는 夫婦石遺蹟과 櫛文系遺物이 다수 출토되고 있는 佐賀貝塚 같은 유적이 그 역할을 수 행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각된다.

이러한 추정은 남해안의 여러 유적에서 原石을 加工하는 과정에 생긴 黑曜石剝片들이 모두 출토되고 있다는 점에서 어느 정도 타당성을 갖는다고 할 수 있다. 특히 동삼동과 범방패총 등의 유적에서는 石器의 成形過程에서 생긴 多量の 剝片과 原石이 출토되고 있어 이러한 추정을 뒷받침해 주고 있다. 뿐만 아니라 연대도 패총에서 출토된 전혀 加工되지 않은 길이 4.8cm, 너비 3.3cm, 두께 2.5cm, 무게 43.6g의 黑曜石 原石은 南海岸地域의 흑요석이 完製品 내지 半製品 狀態로 搬入되지 않았음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좋은 事例라고 할 수 있다.

물론 모든 黑曜石製石器가 原石으로 搬入되어 在地에서 加工된 것으로는 생각되지 않지만<sup>46)</sup> 基本的으로는 原石을 入手하여 石鏃이나 필요한 小形石器를 제작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상과 같은 형태로 搬入된 흑요석은 그 原石에 상응하는 交換物資 즉 交易品이 존재했을 것으로 생각된다. 현재로써 어떠한 物品이 여기에 해당하는지는 알 수 없으나 아마 原石의 產地인 九州地域에서 產出되지 않은 한반도 남부의 特産物이 그 對象物일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하겠다.

交易의 대상물로서는 蠡貝塚에서 출토되고 있는 비단가리비조개<sup>47)</sup>나 佐賀貝塚에서 출토된 고라니의 上顎犬齒로 만든 骨製頸飾(그림 9-20)과 흰삿갓조개와 빨럭지삿갓조개로 만든 貝製品(그림 9-17~19), 大矢유적에서 출토된 鰲山里型結合式釣針(그림 9-21) 등이 해당되었을 것이고, 그밖에 毛皮나 木器, 骨角器, 織物 등도 이용되었을 것이며, 후술하는 동삼동패총의 패천(그림 11)은 주

46) 南海岸地域에서 출토되는 黑曜石製石器 중에서 西北九州漁撈文化의 특징적인 石鏃나, 石鈹, 일부 大形石鏃 등은 完製品의 형태로 搬入되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된다.

47) 江坂輝彌, <朝鮮半島의 西北九州地方의 先史·原史時代における 交易と文化交流> 《松坂大學紀要》4, 1986.

요 교역의 대상물이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直接的인 交易의 對象은 아니지만 黑曜石의 交易이나 漁撈活動의 결과 兩地域의 다양한 文物이 상호 流入되거나 그 영향으로 새로운 文化要素가 등장하기도 한다.

예를들면, 한반도의 경우 上老大島貝塚에서 출토된 西北九州型 釣針(그림 5-5·6)이나, 東三洞, 欲知島貝塚의 離頭銛<sup>48)</sup> 등과 동삼동, 신암리유적, 상노대도패총에서 출토되는 轟B式土器(그림 2-1·2), 曾畑式土器, 船元Ⅱ式土器(그림 2-3), 阿高式土器(그림 5-1), 中津式土器(그림 5-10), 南福寺式土器(그림 3)등의 繩文土器는 物資交流의 副産物로써 九州地域에서 流入된 舶載品으로 보인다.

한편, 교류의 과정 속에서 그 영향으로 九州 繩文系遺物の 模倣品이나 類似品 혹은 在地化한 것도 간취 된다. 특히 隆起文土器 段階의 소위 屈曲型土器는 九州의 轟B式土器의 영향으로 在地化한 것으로 생각되고 있다.<sup>49)</sup> 그러나 曾畑式土器나 繩文中期 이후의 繩文土器는 櫛文土器文化에 전혀 영향을 주지 못하고 단순히 交流의 副産物로써 남게된 것으로 생각된다.

石器類는 九州地域의 것을 모방한 유사품이 일부에서 만들어지게 되는데 대표적인 것이 繩文文化의 대표적 石器인 石匙이다. 동삼동(그림 4-6)과 연대도패총에서 출토된 石匙(그림 5-14·15)는 在地産 水晶과 혼펠스石質에 繩文石器의 기능과 형태를 모방한 것이다.<sup>50)</sup>

48) 木村幾多郎, <交易のはじまり> 《考古學による日本歴史》10, 雄山閣, 1997.

49) 廣瀬雄一, <韓國隆起文土器의 諸問題> 《考古學の世界》6, 1990.

50) 新岩里나 欲知島, 東三洞貝塚 등에서 출토되고 있는 소위 鎌崎型스크레이퍼는 繩文文化 系統의 石器로 이해되고 있다. 그러나 최근들어 南海岸地域에서 出土例가 증가하고 있고, 形態적으로 九州地域 것보다 定型化되어 있는점, 韓國의 櫛文系遺蹟인 對馬島의 越高遺蹟에서 時期的으로 最古의 例가 확인되고 있는 점 등으로 미루어 鎌崎型스크레이퍼는 한반도 南部의 隆起文土器文化 가운데서 만들어져, 이것이 對馬島를 거쳐 西北九州地域에 전파 되었을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된다.(田中良之外, <壹岐·鎌崎海岸遺蹟について> 《九州考古學》54, 1979.)



일본 九州의 경우 交流의 副産物으로써 한반도 남부지방에서 直接的으로 流入된 櫛文文化 요소는 대부분 土器 뿐인데 對馬島 資料를 제외한 九州本土의 例로는 蠡貝塚의 隆起文土器(도면 9-6)와 瀛仙洞式土器(도면 9-7), 白浜遺蹟의 彩色土器(그림 9-8) 등이 있다. 交流過程 속에 櫛文土器의 영향으로 出現한 것으로는 주지하다시피 繩文前期 後半代의 西唐津式土器(그림 10-1~4)가 대표적이다. 이밖에 九州의 蠡B式土器의 성립에도 한반도 남부의 隆起文土器文化와 깊은 관련이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sup>51)</sup>

이밖에 현시점에서 系統은 불확실하지만 兩地域에서 공통적으로 확인되는 문화요소도 있다. 산동패총에서 확인된 貝釧裝着 習俗과, 범방·신암리유적의 人形土偶, 옥지도패총의 멧돼지形土偶 그리고 동삼동패총에서 출토된 貝面 그리고 동삼동패총 및 신암리유적에서 보이는 玦狀耳飾과 耳栓 등은 兩地域에서 공통적으로 보이는 요소이다.<sup>52)</sup>

일부 文化要素의 이러한 共同化 現象은 오랜 交流期間을 통해 兩地域의 문화가 상호 접촉 또는 交遇하는 가운데 生成된 것임은 분명하다.

51) 중국 동북지방의 隆起文土器文化의 영향내지 전파에 의해 성립된 한반도남부의 隆起文土器는 일부 요소가 九州地域에 영향을 주게 되고 그 결과 전단계에 보이지 않던 隆起文을 주요 문양대로 하는 蠡B式土器가 성행하는 것이 아닌가 한다.(河仁秀, <日本 白浜遺蹟出土 彩色土器小考> 《博物館研究論集》5, 釜山市立博物館, 1996.)

52) 木村幾多郎, <交易のはじまり> 《考古學による日本歴史》10, 雄山閣, 1997.

## V. 貝鈎의 生産과 流通

흑요석과 함께 신석기시대 대외교류 혹은 교역 관계의 일면을 잘 보여 주는 유물 중의 하나가 패천이라고 할 수 있다. 패천은 지금까지 남해안지역의 산동패총, 연대도패총의 예나 일본의 승문시대 예를 통해 주로 신석기인들이 착용하는 장신구의 관점<sup>53)</sup>에서만 주목되어 왔고 다른 측면에서의 이해와 연구는 거의 없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것은 관련 자료의 부족과 유적조사의 부재에서 오는 당연한 현상임은 물론이다. 그런데 최근 동삼동패총의 정화지역의 발굴조사에서 1500여점에 달하는의 대량의 패천(片 포함)이 출토되므로 패천의 성격과 의미에 대한 재인식이 필요하게 되었다.<sup>54)</sup>

다시 말하면 단일 유적에서 집단내의 소비와 장신용으로 이렇게 많은 양의 貝鈎을 생산 제작하였다고는 도저히 생각할 수 없고 뭔가 다른 이유가 있다는 것이다. 물론 동삼동패총에서 출토된 貝鈎이 모두 동시기에 제작된 것은 아니지만<sup>55)</sup> 시기별로 볼 때 중기 이후의 퇴적층과 주거지에서의 출토량은 타유적의 출

53) 林九乘, <貝鈎에 대한 考察> 《山登貝塚》, 釜山水産大學校博物館, 1989.

54) 동삼동패총 정화지역 출토 貝鈎에 대해서는 현재 정리 분석 중에 있어 구체적으로 언급할 수 없으나 지금까지 정리한 결과를 중심으로 간단히 본고에서 언급하기로 한다.

55) 동삼동패총 출토 패천은 현재 정리 중에 있어, 본고에서 제시한 층위별 출토양에 대해서는 약간의 가감과 변동이 있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나 큰 차는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현재까지 파악된 내용을 간단히 살펴보면, 교란층에서 600여점, 早期層에서(7층 1점, 8층 8점, 9층 2점) 11점, 前期의 3號住居址에서 15점, 中期의 1號주거지에서 166점, 2號住居址에서 101점, 중기의 퇴적층(5층)에서 278점, 後期層에서 149점(3층 47점, 4층 102점), 晚期層(2층)에서 201점이 출토되었다. 동삼동패총에서의 時期別 貝鈎 출토 양상을 그대로 이해한다면 中期에서 晚期에 걸쳐 많은 양이 제작되었고 특히 中期에 生産과 消費量이 많았던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용기문토기를 중심으로 하는 早期段階에는 그다지 유행하지 않았거나 소비량이 적은 것으로 생각된다.

토포와는 비교할 수 없는 많은 양 임은 분명하다.

이러한 사실은 <표 4>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한반도 남부지역 여러 유적에서 지금까지 출토된 貝鈿의 현황과의 비교에서도 잘 알 수 있다.

동삼동패총 외 가장 많은 양의 貝鈿이 출토된 유적은 26점이 출토된 상노대도유적<sup>56)</sup> 뿐이고 그밖의 유적에서는 10여점 전후의 아주 소량 만 출토되고 있어 전술한 동삼동패총과는 좋은 대조를 이루고 있다.

그러면 동삼동패총 출토 貝鈿의 의미와 성격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는가. 이 문제에 대해서는 향후 구체적인 분석과 연구가 뒤따라야 하겠지만 일단 본고에서는 앞에서 살펴본 흑요석 문제와 관련하여 대내외의 교역의 관점에서 간단히 살펴보고 상세한 고찰은 차후에 다루기로 한다.

결론적으로 말해 필자는 최근 동삼동패총에서 출토된 1,500여 점이나 되는 엄청난 양의 투박조개제 貝鈿에 주목하여, 전술한 구주지역에서 유입된 흑요석과의 주요 교역물로서 부산지역의 동삼동패총에서 貝鈿이 대량으로 생산되고, 한편으로는 한반도 내륙 쪽에도 공급되었던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다시말하면 대외적으로는 동삼동패총의 貝鈿이 구주지역의 흑요석과 주교역 대상물로서 대마도佐賀패총이나 구주지역에 공급되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생각하고 있다.

물론 구주지역의 투박조개제 貝鈿에 대한 산지분석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구주의 패천이 동삼동패총에서 제작 생산되어 공급되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으나 적어도 佐賀패총 출토 투박조개제 패천은 동삼동패총에서 공급되었을 개연성은 높은 것으로 추정된다.

일본 구주지역과 한반도를 통틀어 동삼동패총 만큼 대량으로

56) 필자가 연세대학교 박물관에서 확인한 수량이며, 발굴보고서에는 몇 점만 보고 되어 있음.

貝鉏이 출토된 곳이 없으며, 일본 구주의 경우 113점의 貝鉏이 출토된 대마도 佐賀패총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유적에서는 소량의 貝鉏만이 출토하고 있다.

佐賀패총의 貝鉏<sup>57)</sup>들은 대부분 투박조개(그림 12-1~5)로 만든 것인데 형태와 재질로 보아 동삼동패총 출토품과 매우 유사하다. 구주지역에서 佐賀패총 만큼 다량으로 貝鉏이 출토된 예가 없고 佐賀패총에서 즐문계유물이 다수 출토되고 있는 점으로 보아 그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고 생각된다.

따라서 이러한 추론이 가능하다면, 동삼동패총 출토 貝鉏는 동삼동패총을 중심으로 하는 거점집단의 흑요석 등과의 교역대상 물로써 이용되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한편, 대내적으로는 낙동강을 따라 청도 오진리유적<sup>58)</sup>(그림 12-7)이나 낙동강 상류에서 가까운 거리에 위치하는 단양의 상시유적<sup>59)</sup>(그림 12-6·7), 도담 금굴유적<sup>60)</sup>(그림 12-9) 등의 내륙 쪽으로, 일부는 해안을 따라 울산 세죽리나 부산 주변 해안지대의 소집단에 공급되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동삼동패총에서 생산된 貝鉏이 어느 범위까지 유통되고 공급되었는가에 대해서는 앞으로 검토가 필요하겠지만 동남해안 지역의 貝鉏 분포범위가 전술한 흑요석의 그것과 거의 동일하다는 점에서 유추한다면 貝鉏도 흑요석과 마찬가지로 꽤 넓은 범위에 걸쳐 유통되었을 것으로 생각된다.<sup>61)</sup>

57) 佐賀貝塚의 일부 貝鉏들은 日人 研究者들에 의해 이미 韓國系일 가능성이 제기되었다.(長崎縣峰町教育委員會, 《佐賀貝塚》, 1989.)

58) 釜山大學校博物館, 《清道 梧津里 岩蔭遺蹟》, 1994.

59) 홍현진, <상시 3마위 그들의 문화 연구>, 延世大學校碩士論文, 1987.

60) 孫寶基, <丹陽島潭里地區遺蹟發掘調查報告> 《忠州泮水沒地區文化遺蹟發掘調查綜合報告書》(I), 忠清北道, 1984.

61) 남해안산의 투박조개로 만든 貝鉏이 군산의 노래섬 라지구패총(이영덕, <군산노래섬3차발굴조사개보> 《호남지역의 신석기문화》, 호남고고학회, 1998.)과 남한강 상류의 상시나 금굴유적에서 출토되고 있는 양상을 미루어 볼 때 패천의 유통은 매우 먼거리까지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여기서 문제는 佐賀패총이나 청도 오진리, 상시, 금굴유적을 비롯한 부산 주변의 유적에서 출토한 貝鉏이 과연 동삼동패총에서 생산되어 공급된 제품인가 하는 것이다. 이에 대해서는 필자도 확인 할 수는 없으나 특정지역에서만 서식하는 투박조개로 만든 貝鉏이 동남해안지역에서 어떠한 형태로든 타지역으로 이동되고 사용되었다고 한다면, 주요 공급처의 유력한 후보지는 동삼동패총 임은 분명하다고 생각된다.

<표 4> 南部地方 出土 貝鉏 現況

번호	遺蹟	遺構	數量	時期	備考
1	東三洞貝塚	패총 주거지	1500점 이상	早期 - 晚期	투박조개, 꼬막, 피조개
2	朝島貝塚	패총	12점	中期	투박조개
3	凡方貝塚	패총	3점	早期 - 中期	투박조개, 피조개(?)
4	北亭貝塚	패총	1점	?	새꼬막
5	수거리패총	패총	15	中期 - 晚期	투박조개, 새꼬막
6	대항패총	패총	8	前期-中期	투박조개
7	안골포패총	패총	8	晚期	투박조개
8	구평리패총	패총	13	晚期	투박조개
9	松島貝塚	패총	4	早期 - 後期	투박조개
10	煙臺島貝塚	패총	13	早期 - 前期	투박조개
11	安島기遺蹟	패총	1	早期 - 晚期	투박조개(?)
12	欲知島貝塚	패총	1	前期	투박조개(?)
13	상노대도	패총	26	早期 - 晚期	투박조개, 백합, 개조개
14	오진리유적	암음	1	晚期	투박조개
15	세죽패총	포함층	1	早期	투박조개
16	山登貝塚	분묘	4	後期 - 晚期	투박조개, 큰매말조개
17	상시유적	동굴	3	早期 - 後期	투박조개, 갈색이랑조개
18	금굴유적	동굴	5	中期	투박조개, 행달조개
19	군산노래섬패총	패총	1	中期	투박조개

## VI. 맺음말

이상에서 부산지역을 중심으로 韓半島 東南海岸과 日本 九州 地方 出土 交流遺物을 통해 新石器時代 대외교류 관계에 대해 살펴보았다. 앞서도 언급한 바와같이 자료적인 제약과 한계로 충분히 검토가 이루어지지 못한 부분도 없지 않다. 이러한 점들은 본 연구를 바탕으로 다시 보완할 예정이지만, 아무튼 櫛文土器文化의 綜合的인 理解와 당시의 漁撈文化의 구체적인 접근을 위해서는 대외문화교류 관계 구체적으로 말하면 韓日交流關係에 대한 體系的인 研究가 필요하고 관련 資料의 치밀한 分析이 요구된다고 하겠다.

그러면 앞에서 검토한 내용을 간단히 정리하므로써 結語에 대신하고자 한다.

韓日 兩地域에서 출토되는 交流文物의 分布狀態는 당시 兩地域間의 交流루트와 交流對象地 그리고 交流의 主體가 海岸地帶에 居住하는 漁民임을 반영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九州地域 繩文遺蹟에서 出土된 櫛文系遺物의 時期別 樣相을 통해 볼 때 韓半島와 日本의 文化交流는 櫛文文化 早期에서 前期에 걸쳐 集中的으로 이루어지나 이후 단절없이 後·晩期까지 지속적으로 전개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交流의 背景은 共通的인 生業 環境속에서 漁撈活動을 통한 構造的인 接觸의 결과 상호 生業技術과 情報를 주고 받는 가운데서 자연스럽게 形成되었던 것으로 보여지며,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상호 物資交流 내지 物物交換이라는 原始的인 交易시스템이 마련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韓半島 南部海岸地域에 搬入된 九州産 黑曜石과 그 遺物들이 어떠한 形態로 流入되었는가에 대해서는 앞으로 많은 검토가 필

요하겠지만 일단 그 가능성을 類推해 보면, 남해안지역에서 이주한 對馬島의 越高遺蹟을 대표로 하는 櫛文系集團에 의해 南海岸地域의 東三洞, 凡方과 欲知島, 煙臺島貝塚 등의 據點集團에 供給되고, 據點集團을 통해 다시 在地의 여러 集團으로 分配되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南海岸地域에 供給된 黑曜石은 煙臺島貝塚의 例에서 보는 바와 같이 대부분 原石 상태로 流入되어 在地에서 필요한 物品으로 加工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그리고 搬入된 黑曜石에 相應하는 特産物 즉 동삼동패총의 貝釧이나 고라니製頸飾, 등과 그밖에 毛皮, 織物, 骨角器 등이 交換物資로 搬出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그림 1> 부산지역 출토 繩文系土器 (축척부동)  
1~25 : 동삼동패총, 26~28 : 조도패총



<그림 2> 동삼동 패총 출토 繩文系土器 (축적부동)

<그림 3> 동삼동 패총 출토 繩文系土器 (축적부동)

<그림 4> 부산지역 출토 繩文系遺物 (축척부동)  
1~6 : 동삼동폐총, 7~13 : 범방폐총

<그림 5> 동남해안지역 出土 繩文系遺物 (축적부동)  
1~4 : 신암리유적, 5~13 : 상노대도폐총, 14~17 : 연대도폐총,  
18 : 안도가유적, 19·20 : 육지도폐총

遺蹟名

- |           |              |             |          |
|-----------|--------------|-------------|----------|
| 1. 新岩里遺蹟  |              |             |          |
| 2. 東三洞貝塚  |              |             |          |
| 3. 朝島貝塚   |              |             |          |
| 4. 凡方貝塚   |              |             |          |
| 5. 煙臺島貝塚  | 20. 伊木力遺蹟    |             |          |
| 6. 上老大島貝塚 | 21. 大失遺蹟     |             |          |
| 7. 欲知島貝塚  | 22. 轟貝塚      |             |          |
| 8. 黑山島遺蹟  | 23. 會畑貝塚     |             |          |
| 9. 高山里遺蹟  | 24. 쓰꾸메노하나遺蹟 |             |          |
| 10. 安島가遺蹟 | 25. 姬神社遺蹟    |             |          |
| 11. 水佳里貝塚 | 26. 白蛇岩蔭遺蹟   |             |          |
| 12. 松島貝塚  | 27. 盜人岩遺蹟    |             |          |
| 13. 多大浦貝塚 | 28. 赤松海岸遺蹟   |             |          |
| 14. 大項貝塚  | 29. 西唐津海底遺蹟  |             |          |
| 15. 대초遺蹟  | 30. 築畑遺蹟     | 35. 夫婦石貝塚   |          |
| 16. 牛峰里遺蹟 | 31. 小川島遺蹟    | 36. 木板海神社遺蹟 | 40. 松崎遺蹟 |
| 17. 山登貝塚  | 32. 天神山貝塚    | 37. 吉田貝塚    | 41. 白浜遺蹟 |
| 18. 공수遺蹟  | 33. 桑原飛櫛貝塚   | 38. 누가스遺蹟   | 42. 臨岬遺蹟 |
| 19. 北亭貝塚  | 34. 越高·尾崎貝塚  | 39. 佐賀貝塚    | 43. 深掘遺蹟 |

<그림 6> 한반도 남해안 및 日本九州 출토 교류문물 분포도

- |             |           |
|-------------|-----------|
| 1. 東三洞貝塚    | 10. 水佳里貝塚 |
| 2. 朝島貝塚     | 11. 安島가遺蹟 |
| 3. 凡方貝塚     | 12. 大項貝塚  |
| 4. 多大浦貝塚    | 13. 대촌유적  |
| 5. 新岩里Ⅲ地區遺蹟 | 14. 牛峰里遺蹟 |
| 6. 煙臺島貝塚    | 15. 山登貝塚  |
| 7. 上老大島貝塚   | 16. 공수C유적 |
| 8. 欲知島貝塚    | 17. 北亭貝塚  |
| 9. 松島貝塚     | 18. 세죽유적  |

<그림 7> 한반도 남부지역 黑曜石製石器 분포도

<그림 8> 九州 對馬島 越高遺蹟 출토 隆起文土器  
축척 : 1·3(1/8), 2·4(1/6), 5~9(1/5), 10(1/4)

<그림 9> 九州地域 出土 櫛文土器系 遺物

1: 小川遺蹟, 2: 桑原飛櫛貝塚, 3~5: 누가시遺蹟, 6·7: 轟貝塚,  
8: 白浜遺蹟, 9~15: 赤松海岸遺蹟, 16~20: 佐賀貝塚, 21: 大矢遺蹟  
축척: 1~16(1/4), 4(1/7), 其他(2/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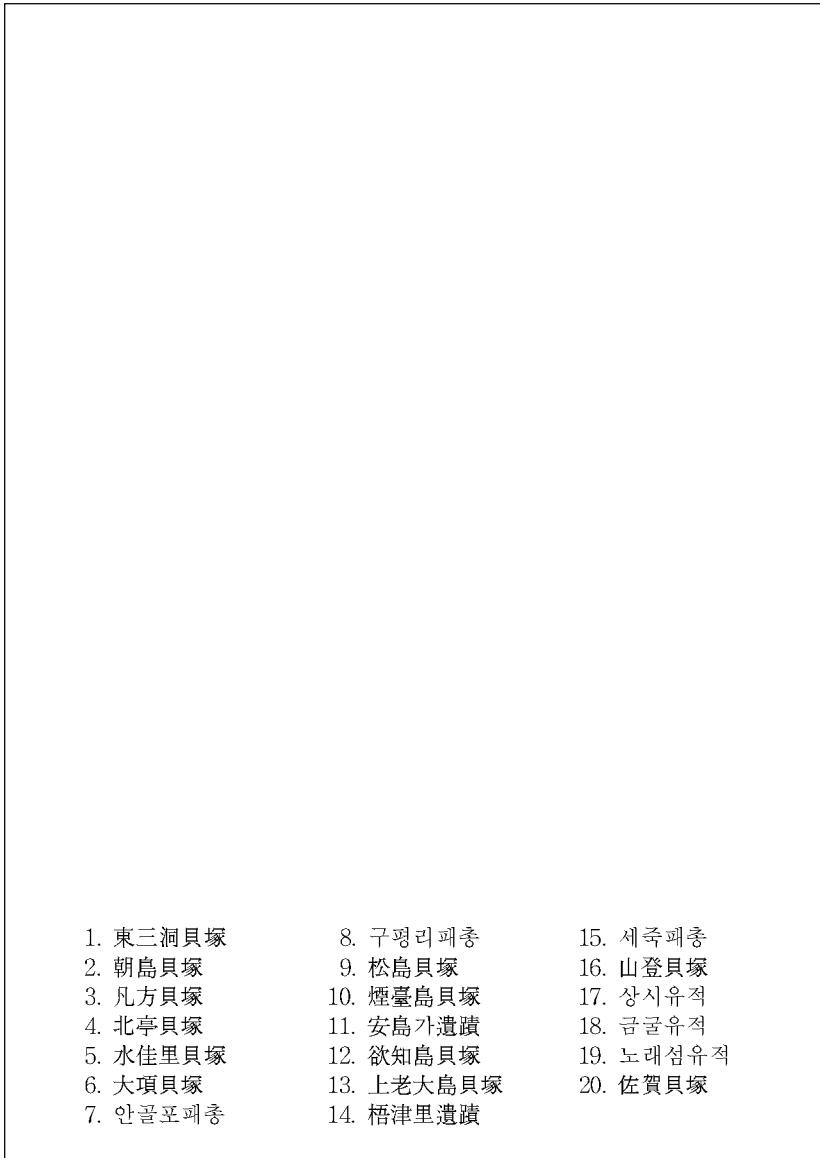


<그림 10> 九州地域 出土 櫛文土器系遺物

1~4: 西唐津海底遺蹟, 5~22: 夫婦石遺蹟, 23: 吉田貝塚 축척: 1~22(1/4), 23:(1/3)

<그림 11> 동삼동패총 출토 貝釧

<그림 12> 한반도 남부 및 대마도 출토 貝鈿 (축척부동)  
1~5 : 佐賀貝塚, 6·8 : 상시유적, 7 : 오진리유적, 9 : 금굴유적



<그림 13> 貝釧의 分布 및 流通 推定圖